

코오롱 노사 항구적 무분규 선언

창립50주년 맞아 노사상생 합창 ... 종합화학·소재기업으로 발전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장기간 노사마찰을 빚었던 코오롱의 노사가 항구적 무분규 사업장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사가 항구적 무분규 사업장 실현을 선언한 것은 2007년 들어 주요 대기업 가운데 처음이어서 재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코오롱 노사는 4월12일 오후 경북 구미사업장에서 개최한 창립 50주년 기념 한마음대축제에서 노사 상생동행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사를 대표한 배영호 사장과 노조를 대표한 김홍열 노조위원장이 공동 서명한 노사 상생 선언문에서 노조는 “근로자는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목표 달성만이 생존과 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며 신뢰와 협력으로 항구적 무분규 사업장을 만든다”고 다짐했다.

회사도 “경영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일터를 만들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선다”고 답했다.

코오롱 노사는 노사 상생동행 정신으로 그룹 모기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글로벌 종합화학·소재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코오롱은 2004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마찰로 장기파업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으나 2006년 새로 들어선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한 뒤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노사 화합의 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13>